



환경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8.(목) 12:00 (금요일 조간)	배포 일시	2022. 12. 7.(수)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현수 (044-201-6678)
		담당자	사무관 금병욱 (044-201-6690)

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, 성공리에 안착

-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6,400억 원 발행 -

- 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금융·산업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해 실시한 ‘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’ 결과를 공개했다.
 - 이번 시범사업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됐으며, 은행 및 기업 6개사*에서 재생에너지 생산, 무공해차량 기반시설(인프라)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 총 6,400억 원의 녹색채권을 발행했다.
 - * 한국산업은행 3,000억 원, 한국수력원자력 1,200억 원, 신한은행 1,000억 원, 중소기업은행 600억 원, 한국중부발전 400억 원, 한국남동발전 200억 원
-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,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 목표* 달성에 기여하는 ‘녹색경제활동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.
 - * (6대 환경목표) ① 온실가스 감축, ② 기후변화 적응,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,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, ⑤ 오염방지 및 관리, ⑥ 생물다양성 보전
-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(그린워싱)을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‘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(가이드라인)’를 발표한 바 있다.
-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며,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하여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.

- 환경부는 금융위원회,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참여기업*과 함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15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으며,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실제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절차를 수행했다.

* 금융계(국민은행, 중소기업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한국산업은행, NH농협은행) 6개 사, 산업계(한국남동발전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중부발전, 현대캐피탈) 4개 사, 전담기관(디엔브이비즈니스 어슈어런스코리아, 로이드인증원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경영인증원, 한국표준협회, 한국품질재단) 6개 사

- 그 결과, 최근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6,400억 원의 녹색 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.

-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사업에 쓰인다.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(태양광, 풍력 등) 생산 3,340억 원, 무공해차량 도입 및 기반시설(인프라) 구축 1,470억 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(5,862억 원)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.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.

-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·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(가이드라인)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,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
-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,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.

-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금융·산업계와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실제 확인했으며, 녹색 금융에 대한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말했다.

- 아울러 “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시켜 탄소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

금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- 붙임 1.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개요.
2. 시범사업 결과 녹색채권 발행실적. 끝.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현수 (044-201-6678)
		담당자	사무관	금병욱 (044-201-6690)
	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투자지원실	책임자	실 장	곽대운 (02-2284-1960)
		담당자	선 임	이승민 (02-2284-1964)



□ **배경**

- 녹색분류체계를 금융·산업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화 기반 구축
 - 녹색분류체계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 발굴 등을 통해 분류체계 보완·개선점 도출

□ **시범사업 주요내용**

- (개요)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수용성 및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위·금융기관·산업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사업 추진
- (참여기업) 은행 6개 사(국민, 중소기업, 신한, 하나, 한국산업, NH농협), 일반기업 4개 사(한국남동발전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중부발전, 현대캐피탈), 전담기관 6개 사(디엔브이비즈니스 어슈어런스코리아, 로이드인증원,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경영인증원, 한국표준협회, 한국품질재단)

<참여기관 역할>

구분	주요내용
환경부	• 시범사업 총괄 및 성과 관리
한국환경산업기술원	• 시범사업 총괄 운영 • 제반 비용지원 등
참여기업 (은행, 일반기업)	• (은행) 녹색채권 발행 및 금융상품 분류체계 적용 확대 방안 연구 • (일반기업) 녹색채권 발행
전담기관 (온실가스 검증기관, 환경컨설팅사)	•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지원 • 환경 분야 자문 수행
외부검토품 (신용평가사, 회계법인)	• 녹색채권관리체계 외부검토 • 자금배분 적정성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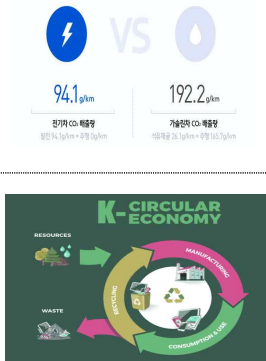
□ **기대효과**

- 녹색분류체계 금융권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 - 금융자산에 대해 녹색분류체계 적용·사례 연구를 통해 분류체계 이해도 제고
- 시범사업 결과 도출된 보완·개선점에 대하여 분류체계 개정
 - 주요 질의내용,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을 종합하여 녹색분류체계 해설서 발간
- 금융권 및 산업계의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발굴

붙임 2

시범사업 결과 녹색채권 발행 실적

□ 녹색채권 발행 실적

기업명	발행일	발행금액	주요 녹색프로젝트	비고
한국 산업은행	10.14	3,000억 원	- 재생에너지(태양광, 풍력) 생산 금융지원 - 탄소중립 핵심기술 금융지원 - 무공해차량 인프라 금융지원 - 폐자원 재활용 금융지원	
신한은행	9.30	1,000억 원	- 재생에너지(태양광, 바이오매스) 생산 금융지원	
중소 기업은행	11.25	600억 원	- 재생에너지(풍력) 생산 금융지원	
한국 수력원자력	11.23	1,200억 원	- 재생에너지(태양광, 풍력, 양수 등) 생산	
한국 중부발전	8.24	400억 원	- 해수욕장 복원 - 무공해차량 인프라 구축·운영	
한국 남동발전	11.4	200억 원	- 재생에너지(태양광, 풍력) 생산	